

# 새만금지구 천연가스 공급 개통

사업비 총 932억원 투입  
3개월 앞당겨 조기 완공  
입주기업 생산비 절감  
기업유치 큰 역할 기대

한국가스공사는 26일 오전 11시에 새만금지구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기념하기 위한 '새만금지구 천연가스 공급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통식에는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부사장, 박성수 공급본부장, 김관영 국회의원, 유희숙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문동신 군산시장,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가스 조기개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14년 7월 새만금지구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공사비 932억을 투입해 군산 성산면에서 새만금관리소까지 28.46km의 주배관 매설 및 3개소의 관리소 설치 공사를 완공했다.

천연가스 개통은 올해 12월 초 천연가스 공급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공급하게 됐으며, 이는 한국가스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간 조기 공급을 위한 협업을 통해 인·허가 및 민원을 공동 대응한 결과 이루어낸 성과다.



26일 군산에서 '새만금지구 천연가스 공급 개통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제작을 하고 있다.

이번 개통식에서는 도시가스공급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건설관계자에 대한 격려와 함께 천연가스 공급을 알리는 밸브오픈식을 가졌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군산도시가스(주)에서는 새만금산단내 입주기업의 천연가스 공급을 위하여 임시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천연가스를 공급하여 왔으나 배관망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됐다.

새만금지구에 청정에너지인 천연

가스 공급설비 완공으로 새만금지구 내 전기, 가스, 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및 기업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부사장은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새만금지구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하여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건설관계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30여

년의 축적된 공급설비 운영경험과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새만금지구에 안정적이고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천연가스 공급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혁신성장, 소득성장 만큼 중요...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 마련”

문 대통령, 모두발언서  
개념정립 추진 체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 순방 기간 미국 금융·경제인 대상 설명회에서 소개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부 경제정책의 ‘3축’을 언급하며 “그 세 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 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중소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다”며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는



김이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으로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조한 혁신성장의 개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진 국정과제 속에도 소개된 내용이다.

전문가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가 나눠 갖는 개념을 혁신성장이라 이름붙인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분배와 복지만으로 유지되거나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꾸준히 가져왔다”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바퀴로 가려는 것은 대선캠페인 과정이나 정부 출범 때부터 공약으로 명확히 해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가시화

김제·남원·무주, 공모사업 선정 국비 36억원 확보  
도, 2020년까지 센터 28개소 → 32개소 확대 계획

전북도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김제시(김제지평선조공법인), 남원시(남원농협), 무주군(무주농협)이 선정돼 국비 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APC : Agriculture Products Processing Center)은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집하, 포장, 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보완 지원사업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에 의해 중앙

정부를 지속 방문,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비 공모신청 3개 시군에 김제시(김제지평선조공법인), 남원시(남원농협), 무주군(무주농협) 등 철저히 준비한 결과, 올해 국비 12억원에서 36억원으로 증액 확보했으며 사업대상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김제시 지평선조공법인에 26억원, 남원시 남원농협에 40억원, 무주군 무주농협에 20억원 등 총 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무주농협은 기존 APC 노후시설 보완 및 사과선별기, 위생설비 등 현대

화된 설비를 갖추어 사과, 복숭아, 포도 등 2,138여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제시 지평선조공법인 APC는 황산면 난봉동 일대에 농산물 선별장, 저온창고, 유통시설장비 등 토마토와 딸기 선별기 등 기계장비를 설치한다.

또한 남원농협은 고죽동 일원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양파, 오이, 딸기 등 8,623여톤을 처리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운영 중인 28개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 시설을 2020년까지 32개소로 확대하여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와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다슬기 70만마리 무상 방류

전북도가 다슬기 70만마리를 무상 방류한다.

26일 전북수산물교육연구소 민물고기 시험장에 따르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다슬기 70만마리를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방류한다.

방류장소는 정읍 평사리천과 무주 남대천, 부안 백천 등 도내 3개 시군 하천이다.

이번에 방류하는 다슬기 치배는 약 100일간 사육관리를 통해 0.7m 이상까지 성장시킨 것으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까지 마친 건강한 다슬기 치배이다.

다슬기는 물고기 배설물과 이끼 등을 섭취해 수질정화 효과가 크고, 담수패류 중 경제성이 가장높은 수산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간질환 치료와 숙취해소, 신경통, 시력보호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추석맞이 국군장병 위문

제35보병사단 등 군경부대·사회복지시설 11개소 방문

전북도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2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향토방위를 책임지는 군부대와 경찰 및 소방, 복지시설 등 11개소를 방문해 위문 격려한다고 밝혔다.

26일 방문하는 육군 제35보병사단은 북한의 핵 위협의 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토수호에 헌신하며 경제군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온 것으로, 추석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일선에서 향토방위와 치안유지에 애쓰는 군부대 장병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35보병사단을 방문

하여 “민일의 안보 위기상황에 대비해 경제태세 강화 등 지역방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방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발생 시 병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에도 헌신해 주는데 대해 감사의 뜻으로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도는 27일에 행정복지시와 정무복지시도 도내 치안유지와 기동, 방범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도 경찰청 소속 5개부대(308의무전경대, 완산,덕진방범순찰대, 기동1,2중대), 금마119안전센터복지시설, 육군부사관학교 등 군부대를 방문하여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17-116호

## 2017년 하반기 사료작물 재배 입찰공고

가. 입찰명 : 새만금 사료작물 재배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선정  
나. 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다. 계약기간 : 2017. 10월 ~ 2018. 09. 30까지  
라. 입찰대상 면적 및 예정가격(총 650ha, 50ha/1개소)

대상	지역	면적	구역	면적	예정가격
농업법인	북쪽	○	A3	50ha	○ 금1,387,000원(부가세포함) · 산물근거 1ha당 27,000원×50ha · 생산자물가 상승분 3.49% 적용
			B6	50ha	
			B7	50ha	
			B8	50ha	
			B9	50ha	
			C1-1	50ha	
			C1-2	50ha	
			C2	50ha	
			C3	50ha	
			C4	50ha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농·축협)	남쪽	○	C5	50ha	
			C6	50ha	
			C7	50ha	
			C8	50ha	
			C9	50ha	
			C10	50ha	
			C11	50ha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공개경쟁입찰(전지입찰)  
- 새만금사업단의 사전승인 후 완료성 비료만 사용 가능(화학비료 사용 금지)  
- 노출지 특성상 갯물, 염해지 등 재배가 어려운 구간이 존재하므로 현장답사 후 입찰  
-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해 가격입찰에 투찰 가능

바. 입찰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본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농·축협)  
\* 본점이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소재지에 있다가 합병으로 인해 타지역에 위치하게 된 농·축협의 경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소재 사무소로 입찰하여야 하며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피해농업법정도 포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법인은 참여 불가**

사. 영농계획서 및 전자입찰서(가격입찰) 제출기한과 장소  
- 영농계획서 제출일시 : 2017. 09. 27.(수) 10:00 ~ 2017. 10. 11.(수) 16:00, 경영지원부  
- 전자입찰서 제출일시 : 2017. 09. 27.(수) 10:00 ~ 2017. 10. 11.(수) 18:00, 온비드

아. 개찰일시 : 2017. 10. 12.(목) 10:00 ~ (입찰접행관 PC)  
자.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139만7000원)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매세 실적 평가 제외) 소재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구역에 중복입찰은 가능하지만, 법인당 1개구역(50ha)만 인정

차. 문의사항  
- 계약사항 : 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부 김효진(063-540-5814)  
- 현장에 관한사항 : 새만금사업단 유지관리부 황 호(063-540-587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